



## 시호 ‘보주태후’에 숨은 비밀

서기 48년에 한반도 김해에 있던 가락국에 도착한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는 수로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 한국사 최초로 기록된 국제결혼 사건인 셈이다. 그때 그 여인의 나이가 16세였으므로 그녀는 서기 32년생이다. 중국사로는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이다. 그 여인의 무덤은 김해시 구지봉에 잘 보존되어 있고 후손들인 김해 허씨들은 지금도 왕비릉을 정성껏 받들고 있다. 왕비릉 앞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능(駕洛國首露王妃 普州太后許氏陵).” 그 여인의 시호(諡號)는 보주태후이다. 왜 아유타국태후라 하지 않고 보주태후라는 시호를 붙였을까? 17세기에 세워진 이 비석에 새겨진 보주라는 두 글자에 대해 그동안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듯하다. 어쩌면 보통사람들에게는 허황옥 자체가 전설의 인물로 치부되어 있으니 무관심이 당연할 수 있다.

### 중국 보주에 남아 있는 쌍어문과 허씨 가문

나도 처음에는 보주가 인도에 있는 지방의 이름일 것이라 생각하고 인도에서 구입한 여러 지도에서 보주로 발음될 만한 지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다가 보주는 뜻밖에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1년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후 사천성을 방문해 그 지역 역사연구자들의 도움을 얻어 안악지방을 답사했다. 안악은 양자강변의 도시로 성도와 중경 사이에 있다. 그 결과 안악현 일대에는 보주 허씨 인구가

10여 만 명이나 살고 있고, 서운향(瑞雲鄉)에는 허씨 집성촌과 보주 허씨 사당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당 정문 문설주 위에는 김해 수로왕릉에 그려져 있던 쌍어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사진 1) 쌍어는 보주 허씨족들의 종산(宗山)에 남아있는 후한 때의 무덤에도 무수하게 새겨져 있었다. 쌍어문은 이제 아요디아, 사천, 김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허황옥의 시호인 보주태후는 중국 보주에서 유래했음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허황옥의 조상은 인도의 아유타국 출신으로, 허황옥은 이들이 보주 땅으로 옮겨 살고 있는 중에 태어난 인물이라는 결론으로 압축된다. 과연 그런지를 알기 위해 당시 역사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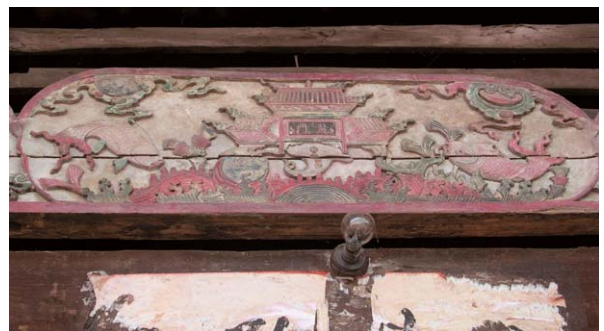


사진 1) 중국 사천성 안악현 보주허씨 사당. 쌍어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곳에 사는 보주 허씨 인구가 10만이 넘는다.

### 허황옥 일행은 왜 김해로 왔다

후한서(後漢書)에 의하면 서기 47년 양자강변의 남군(南郡)에서 토착인들(南郡蠻)이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정부는 가까운 형주(荊州)의 유상(劉常) 장군을

파견하여 반란세력을 제압했다. 그 결과 토착인 7천 명이 강하(江夏, 양자강 하류 武漢지방)로 추방되었다. 이듬해인 서기 48년 가락국에 허황옥이 도착했다. 그 후 서기 101년에 이곳에서 또 반란이 있었는데 오랜 대치 끝에 반란세력의 우두머리가 항복했다. 그의 이름은 허성(許聖)이었다. 즉 허씨가 보주 지방 토착세력 반란의 주동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허(許)는 성씨가 아니라 세습되는 직업무사(巫師)이고 매우 존경 받는 계급이라는 해설도 있었다. 무사는 중국인이 유교적 개념으로 본 이민족의 신앙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허황옥의 후손 중에 일부가 허씨 성을 사성 받아 오늘날 김해 허씨가 생겨났다.

인도의 아유타국, 중국 사천지방의 보주 허씨들, 반란사건, 아유타국 공주의 한국 도착은 톱니바퀴가 딱 들어맞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황옥의 시호가 보주태후가 된 것이다.

인도의 아유타국과 보주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는 히말라야 남쪽에 있는 차마고도(車馬古道)이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동하던 무역로이다. 전한 때 서역을 탐사한 장건(張騫)의 보고에 의하면 사천지방 특산물인 죽세공품이 인도를 통하여 중앙아시아까지 퍼져 있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와 서역을 통하는 길이 사막의 오아시스 길 말고도 남쪽에 있으므로 남쪽 통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무제(武帝)에게 건의하였다.

그만큼 인도-사천을 잇는 통로의 역사는 길다. 그 길을 현대 역사가들은 오척로(五尺路), 즉 폭이 1미터 남짓한 좁은 길이라고 부른다. 그 길은 미얀마의 미치나, 중국의 등충(騰冲), 대리(大理), 안악(보주)으로 연결된다.(사진2)

### 대규모 상단과 함께 온 허황옥

한편, 보주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잠시 머물던 무한은 양자강변이다. 거기서 강을 따라 흘러나오면 황해바다이다. 이 통로를 따라 쌍어문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사진 2)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도시, 등충(騰冲). 옛날 사당의 지붕 추녀 끝에 철제 쌍어문 중 한쪽, 일본 불교 사원의 용마루 끝에 달리는 꼬리만 보이는 물고기와는 내용이 다른 상징이다.



사진 3) 양자강 주변에서 발견된 한(漢)나라 때 제사용 그릇, 쌍어문이 선명하다. (운남대학 소장)

다.(사진 3) 즉 상단(商團)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상을 남긴 것이다.

허황옥 일행이 바다를 건너 가락국에 도착하여 배에서 꺼내 놓은 선물의 명단은 금수능라(錦繡綾羅, 비단 옷감), 의상필단(衣裳疋緞, 옷가지), 금은주옥(金銀珠玉, 금은보석류), 경(瓊, 루비), 구(玖, 옥), 복완기(服玩器, 장신구) 등 한사잡물(漢肆雜物, 중국 한나라 고급상품)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육지와 바다를 건너 다니며 장사하던 사람들이었다. 물건 중에는 특히 한나라의 고급상품이 있었고 루비는 미얀마, 옥은 운남지방의 특산품이라는 사실이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측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허황옥은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던 대규모 상단과 함께 한반도에 온 이방인이었다. C

### 김 병 모

고려문화재연구원 이사장, 『허황옥 루트-인도에서 가야까지』의 저자